

이 대통령-트럼프, 북미대화 필요성 공감... 北 호응은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북미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견례 성격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북미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당분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재차 확인하면서 회담 가능성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평화)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북미접촉의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할 여력이 거의 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

이 대통령, 트럼프에 "피스메이커 하시면 지원" 트럼프, 김정은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의지 구체적 대북제안 언급 없어... 북, 상황 주시할 듯

를 독차지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김 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는 데 발언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했다.

또 "저는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김 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과거 인연을 상기한 것으로,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에게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구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내세운 만큼, 단기간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답회에서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비핵화 논의는 "상대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에만 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2023년 최고법인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하며 비핵화 협상 의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르면 올해 말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대미·대남 전략을 확정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때까지 국제정세를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러시아'를 뒷배로 삼고 있어 북한에 보다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된 것도 북미대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요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의 '비'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

야기하고, 미국은 일단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일종의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국힘도 강성 지도부 탄생... 정청래·장동혁 강대강 대치 심화할 듯

대선 패배 이후의 당을 수습하고 내년 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할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기반한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정국은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장 신임 당대표는 26일 수락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히며 대(對) 투쟁 전면전을 예고했다. 양당 간의 강경 대치 국면은 국민의힘에서 강경 투쟁 노선을 택한 후보의 당대표 당선에 유력시된 순간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해 왔다. 나아가 "계엄 해제 포괄 방해가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가능"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세를 이어 왔다.

이러한 정 대표를 상대할 장 신임 당대표는 "협치하려면 국민의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선(先) 단일대오 후(後) 협치' 방침을 확고하게 밝혀왔다. 선불리 형식적인 협치에 나서기 보다는 내부 결속을 통해 대(對) 강경 투쟁 동력을 먼저 키우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李 끌어내리겠다" 정청래 "국힘 해산"에 맞서 장동혁 "더 강해질 것" 특검 연장·검찰개혁 법안 처리 등 놓고 여야 갈등 전망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선출된 뒤 담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그는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만나고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정치 협상은 아니다. 진정한 협치, 협상이 이뤄지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이 정전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항 방식 또한 격

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 폐지와 공소·중수정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법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뉴시스

광주 찾은 조국 "제2의 DJ 발굴해 새로운 흐름 보이고 싶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는 기초가 중요하다. 광주·전남에서 새로운 제2의 김대중, 노무현을 발굴해 새로운 흐름을 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지를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적으로 쟁취한 지방선거는 풀뿌리 생활밀착형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전남에서는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보다 아주 젊고 새로운 제2의 DJ, 노무현을 발굴해 새로운 바람과 흐름을 선보이는 게 꿈"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또 "내란을 옹호하고 방조,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국힘이 광역단체장을 단 한 석이라도 차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아니기 때

5·18민주묘지 찾아 "지방선거는 풀뿌리 정치 강화" "국힘 광역단체장 1석도 안돼...민주당과 연합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단 한 석이라도 차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각오를 하기 위해 찾은 곳이 광주다. 5·18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

기고 정치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계엄을 잡하고 싸우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5·18"이라고 했다.

이어 "저의 사면을 위해 애써주신 어르신들이 많다. 그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 오늘 광주를 찾았다. 그게 기본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사고·고장 시

비트박스만 기억하세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 신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